

소규모 가족기업 소유자의 사업장 위치와 근무환경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Work Environment and Location of Family-owned Small Business*

우석대학교 가정학과

교수 郭仁淑

중앙대학교 인간생활환경학과

교수 李慶姬

Woosuk University, Dept. of Home Economics

Professor : Kwak, In-Sook

Chungang University, Dept. of Human Life and Environment

Professor : Rhee, Kyung-Hee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결과해석 및 논의 |
| II. 이론적 배경 | V. 결 론 |
|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According to recent statistics, the number of family-owned small business have increased. And these growing numbers have created an urgent need for researchers and government to analyse and plan for this population.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dentify the determining factors of the location of family owned small business and to analyze the factors related to their job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The data used for this study, were 713 self-employed men and women which were selected from the panel data of 1998 KHPS of Daewoo Economic Research Institute. Statistics performed for the analysis were frequencies, percentiles, t-test, X^2 , OLS and Logistic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person who work at home-base small office were the residents of smaller city, and are older than the office-going attendants. The variable which effects the job satisfaction of the home-based workers was the educational background. And sex was the only factor which affects the job satisfaction of the office-going attendants. It was also found that job satisfaction affects the life satisfaction significantly in both group.

* 본 연구는 2000학년도 우석대학교 학술연구지원비의 지원을 받았음

I. 서론

우리 나라에서 비농업 부문 자영업자의 비중은 거의 30%에 이를 정도로 높다. 최근 IMF 관리체제 이후 취업보다는 개인 창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직전인 1997년 10월을 기준으로 하여 1년 사이에 남자의 경우 취업자수가 67만 명이 감소하였으나 유급종업원 없이 단독사업을 경영하는 자영업자의 수는 오히려 11.6만 명이 증가한 것이 하나의 예라 하겠다(류재우 외, 1999). 또한 이러한 예는 불황기에 있어서 자영업 부문이 어느 정도 실업의 완충 역할을 하고 있음을 제시하는 것이다. 한편 자영업은 본래 소득위험이 크고 사업실패로 인한 퇴출의 가능성이 크므로 이 부문 종사자는 여타 부문 종사자에 비해 더 자주 노동시장의 유입에 유동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자영업 부문은 고용, 실업의 흡수, 노동력의 유동 등과 관련하여 우리 노동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부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아 왔으며 관련 지식도 거의 축적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자영업 부문은 최근에 이르러서야 얼마간의 조명을 받기 시작하였는데, 최근 자영업 부문에서도 창업자본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거주지 사업장의 활용(Home office)이 적극적인 대안으로 모색되고 있다.

과거 농경시대 사람들은 일터와 주거지가 근접한 생활환경을 유지해야만 했으나,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사람들은 주거지로부터 분리되어 일정한 작업장소로 정규적인 출퇴근을 하게 됨으로써 일터와 주거지가 분리되었다. 그러나 교통과 새로운 정보기술의 발달에 의해 근로형태의 다양해지고 새로운 업종이 생기면서 거주지와 일터가 다시 통합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기혼여성들의 노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자녀 양육과 가사부담을 병행하려는 가족 기업 형태의 노동참여는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러한 변화는 가정생활의 내용을 함께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장과 가정이 동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기업경영과 가정생활의 구분이 불분명해지며, 가족구성원들의 역할부담이 커지는 등의 문제를 야기 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의 근무 장소에 관한 관심은 아직 초기 단계로서 어떠한 근무 장소의 선택이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에 대한 만족을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분석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가족소유 소규모 자영업 가계의 사업장 위치와 근무 환경은 어떠한 상태이며 근무환경 만족도와 직업 만족도,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의 수준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데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가족기업의 사업장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가족기업의 사업장소가 주거지를 중심으로 형성되는지 또는 출퇴근이 필요한 독립된 장소로 선정되는지는 다양한 측면에서 조망할 수 있다. 기존의 논의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아래에 제시한 관점들에서 사업장소의 구분이 영향을 받게된다는 점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 기업의 유형에 따라 기업형 가족기업 보다는 생업형 가족기업의 경우 주거지 중심의 근로의 형태가 보편적이다. 한국의 가족기업 형태는 가족기업 이중기능 체계가 지향하는 '가족기능·기업기능'의 특성에 근거하여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가족기능을 지향하는 '생업형 가족기업' 경영과 기업기능을 추구하는 '기업형 가족기업' 경영으로 구분한다. 이러한 분류는 가족구성원이 가족기업 경영의 주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경영동기와 행동 면에서 차이를 나타낸다. '기업형 가족기업' 경영은 생업형과 마찬가지로 가족구성원의 노동력이 주체가 되는 경영이지만 가계와 기업경영은 명확히 구분되고 이윤극대를 목표로 행동한다. '생업형 가족기업' 경영은 가족기능을 우선적으로 추

구하므로 가족기업 경영의 목표는 생활충족 및 만족 극대화 동기가 중심이 된다. 또한 이윤확대 및 사업확대 동기는 부차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가계와 기업경영이 미 분리 상태이고 소규모의 주거지 중심의 재택 근로 기업 형태가 많다. 특히 이러한 생계형 가족기업의 경우 소득이 낮으며 주로 주택을 사업장으로 하는 소규모의 가족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김지희, 1998)

둘째, 주거지 중심의 노동은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시 자녀 양육 등의 부담으로 인한 대안적 해결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최근 여성 중심의 재택근로와 함께 여성 중심의 가족기업 실증연구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관심이 되고 있는 재택 가족기업 및 1997년말 IMF 체제 이후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소규모 가족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거지를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재택 가족기업 가정의 일반적 특성과 경제적·비경제적 산출 요소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문숙재·김지희, 1997a, 1998). 동시에 자녀양육 부담으로 인해 나타나는 기혼여성들의 노동시장 중도이탈 보편화 현상(최강식·정진화, 1997)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탐색 과정에서 재택 가족기업은 '가정·직장 병존적' 근로형태의 개발과 확대라는 측면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재택 가족기업형태는 집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혼여성들의 근로욕구를 충족시켜준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노동시장의 탄력성 제고에 기여함으로써 경제활동의 유연성을 제공하는 기제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Heck, 1988, 1992). 이러한 점에서 가족기업의 운영자들의 성별과 생활주기에 따라 소규모 가족기업의 참여형태는 차이를 보일 것이라 생각된다.

셋째, 국가 산업구조의 변화와 IMF 체제 이후 지속되는 경제악화로 인해 사퇴, 은퇴, 실직이 증가하고, 많은 사람들은 기존의 주 소득원을 잃게 되면서 가족자원을 활용한 가족기업 창업 -특히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형태의 소규모 가족기업- 을 원하며, 실제로 소규모 가족기업 창업이 급속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문숙재·김은희·이석경·채민

정, 1998). 주택을 사업장으로 삼는 소규모 가족기업은 가정의 물적·인적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가족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가족의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목적에서 다양한 형태로 자리잡고 있다. 여기에서 주택은 사업장의 성격을 가지며 주택의 유형에 따라 그 용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넷째, 1990년대 이후 정보통신기법인 컴퓨터와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의 결합에 의해 업무환경이 크게 변화하면서 SOHO(Small Office Home Office)라고 불리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기업 유형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SOHO는 현대사회의 새로운 업무조직 형태로 세계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미국의 경우 1997년 현재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1/3에 해당하는 5천 만 명 이상이 독립 SOHO를 경영하고 있고, SOHO 관련 연간시장 규모는 무려 4천 5백억 달러에 달한다. 한국의 SOHO 인구에 대한 확실한 집계는 없으나, 정보제공업체를 통해 SOHO 희망 및 인터넷을 통한 SOHO 정보 유료서비스에 가입한 사람들만 해도 1997년 한해동안 1만 명을 넘고 있다. 이는 지난 3년간에 걸친 개인·법인 가입자 수와 비슷한 수준으로 관심이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SOHO의 급증현상은 노동력 절감을 피하는 기업들의 전략과 독립경영을 선호하는 현대인들의 성향이 잘 맞는 결과이기도 하다. 또한 가정을 기반으로 가정내의 전화나 팩스 등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임대료, 사무실 유지비, 인건비, 출퇴근 경비 등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은 창업비용이 적고, 가정에서 경제활동이 가능하므로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후 명예퇴직, 실직 등으로 소득원을 잃게 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SOHO 창업이 증대하고 있다(중앙일보, 1997. 12. 3).

위에서 제시한 주거지를 중심으로 가족기업을 경영하는 가족기업들은 실제로 이들이 생계형의 가족기업인지, 또는 여성의 근로를 위한 가족기업인지, 그리고 최근의 정보통신 기술 발달에 힘입은 가족기업의 형태인지 명확하게 구분하는 일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이상의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주거지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러한 유형의 가족기업들은 기존의 독립적인 장소에서 운영해 오던 기업형의 가족기업과는 구별되며 이러한 기업을 운영하는 개인 그리고 가족적인 특성은 성별, 연령 또는 교육 정도나 소득에 있어서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점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이들의 장소적인 특성은 이들의 운영이나 관리형태, 그리고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2. 가족소유 소기업의 사업장 위치가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

사업장의 위치에 따라 가정기능 및 개인생활 영역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측면을 가정경제, 가족관계, 가족시간관리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거주 주택이 사업장이 될 경우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직접적인 소득창출을 할 수 있고, 대리 자녀양육비, 교통비, 의복비 등의 지출감소를 통해 간접적 잠재소득을 얻음으로써 가정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 특히 소규모의 가족기업인 경우 초기의 창업비용이 적게 들고 가족들의 무급노동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제약을 받는 가족들에게는 쉽게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또한 경제활동과 가정생활이 가정이라는 동일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므로 가족구성원들은 충분한 상호작용을 통해 가족관계를 증진시킨다. Brabec (1994)의 연구에 의하면 부부가 같이 재택 가족사업을 할 경우 애정과 협력의 관계를 강화시키며 직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가족과 직업의 공유영역에 대한 연구에서는 일과 가족공간을 결합하는 것은 가족과 배우자와의 상호작용을 높인다고 한다(Beach, 1989). 특히 재택근무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가족소유 소기업의 경우, 여성 참여자는 가족의 요구에 유급노동의 요구를 맞추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과 직업을 결합시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기업경영 및 업무수행에 관해 가족구성원들이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상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조언 및 정신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한편, 주거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가족기업에게 있

어서 가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강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분야는 가족시간관리의 측면이다. 이러한 가족기업은 자신의 근로시간 선택을 자유롭게 하고, 유연한 노동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 이는 직업활동과 가정생활 병행에 따르는 시간갈등을 완화시켜주는 효과를 가져온다. 즉, 융통성 있는 시간사용이 가능하므로 가족원들과 함께 생활하는데 있어 시간제약을 적게 받는다. 또한 가정에서 자신의 사업을 경영하므로 자녀가 매우 어리거나, 환자, 노약자 등 부양요구가 높은 가족원들을 돌보는데 용이하다(중앙일보, 1998. 2. 9). 한편, 이들의 가사노동 참여시간은 여성과 남성 모두 일반취업자 가정과 차이를 나타낸다는 보고가 있다(문숙재·김은희·이석경·채민정, 1998). 이들 연구에 의하면 여성의 경우 일일 평균 가사노동 시간은 일반 취업여성보다 길다. 그러나 가사노동시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취업여성들이 가족 돌보기, 미취학 자녀양육에서 갈등을 겪는 반면, 이들은 자신들이 시간을 융통성있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이 적고, 가족 및 자녀 돌보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점을 오히려 긍정적 측면으로 받아들인다고 하였다. 남성의 경우 이들과 일반 취업자의 가사노동 참여시간은 매우 유사했으나 가사노동 내용상의 차이를 보여 일반 취업남성들이 주생활관리 및 청소, 장보기 등의 가정경영에 소비하는 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에 반해, 재택 가족기업종사자들은 가족 돌보기와 가정경영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재택 가족기업일 경우 가족시간관리의 측면에서 기혼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자녀 돌보기에 융통성 있게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며 동시에 남성들로 하여금 가정에서 일을 하면서 가정생활 및 가사노동의 상황에 보다 쉽게 노출됨으로써 가사노동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분리된 사업장을 가지는 자영업자의 경우 출퇴근의 문제는 또 다른 어려움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통근에 대한 스트레스는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초기보다는 감소되는 경향이 있으나 특히 교통방법이 다수의 교통 수단을 이용해야 할 경우, 또는 교통량

이 많을 경우 이러한 스트레스는 더욱 커지게 된다 (Stokols & Navaco, 1981). 이러한 스트레스는 심장 박동과 혈압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반면, 재택 가족기업의 경우 참여 근로자들은 가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존재한다. 이러한 부정적 측면은 작업수행의 생산성과 가족시간관리 영역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들 종사자들은 어린 자녀나 다른 가족구성원들로 인해 자주 업무방해를 받는다. 특히 가정에 특별한 보살핌을 요구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경우 작업방해를 통한 생산성 저하현상이 나타난다. 만약 가족구성원들로 인해 일의 방해를 받게 되면 가족 경영자들은 자신들의 수면시간을 줄여 작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시간부족 현상을 경험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사회학과 여성학 분야의 연구자들은 자영업 재택 가족기업이 기혼여성들로 하여금 '가정·일'의 이중역할수행에 따르는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기제라고 본다(신경아, 1994; 조은, 1997; Heck, 1992; Heck, Stafford & Winter, 1993).

따라서 경영자들은 보다 계획적인 시간관리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Fan, 1993; Edwards & Edwards, 1994). 즉 기혼여성들은 직업과 가족책임이 같은 공간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로 인한 연속적인 압력은 직업관련 스트레스를 가져올 수도 있으며, 가정 내 다중 역할 수행으로 인한 갈등은 특히 여성의 경우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Heck, 1995; Salomon & Salomon, 1984; Ahrentzen, 1990; Masuo, 1992).

한편, 경영체계내의 노동관리 측면을 보면, 가족기업에서의 근로시간은 평균 노동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로를 한다. 가족기업에 종사하는 가족구성원들은 정기적이고 공식적인 휴일이 매우 적다. 한 달에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한다는 사람도 있어 가족기업 종사자들의 과중한 노동시간 및 환경을 말해준다. 가족기업은 이에 참여하고 있는 가족구성원의 노동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과도한 노동부담이나 장시간의 노동시간은 가족원들의 건강을 해침으로써 가족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용현주, 1998; Hayghe, 1990).

이와 함께 가족기업 경영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를 알아본 결과, 가족기업 경영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은 일에 대한 자부심이 높고, 가족기업 경영이 자신의 적성 및 성격과 부합한다는 것이다. 반면, 부정적 측면은 과도한 노동시간, 가족기업 장래의 불안정성에 대한 문제이다. 가족기업을 경영하고 있다는 그 자체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는 높은 편이라는 보고가 있다(최태룡, 1989).

기업의 관리자들은 생산성에 추가하여 작업환경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가져왔다. 대체로 물리적 환경이 직무안정, 보수 그리고 우호적인 동료작업자와 같은 요인들만큼 중요하진 않지만, 직무환경에 있어 물리적 환경은 높은 순위를 차지하게 된다는 보고가 있다(Herzberg 등, 1957). 적절한 작업환경이 실질적으로 직무만족을 증진시키지는 않으나, 기준 이하의 환경은 분명히 불만을 가져온다(Herzberg 등, 1957; Herzberg, & Snyderman, 1959).

이상의 연구들에서 나타난 결과들을 볼 때 소규모 자영업 가족기업들의 경우 사업장의 장소를 거주 주택을 중심으로 두고 있는가, 또는 독립적으로 분리된 장소에 두는가에 따라 생활내용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소규모 가족소유 자영업 가계의 사업장 위치는 어떠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근무 환경에 따라 근무환경 만족도와 직업 만족도,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의 수준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위해 설정된 구체적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기업 소유자의 사업장소에 따라 출퇴근을 하는 가계와 주거지에서 일하는 가계는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표 1〉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독립변수	측정방법
자영업자의 성별	0=남자, 1=여자
연령	자영업 소유자의 연령
교육수준	자영업 소유자의 교육받은 년수
소득	자영업 소유자의 월평균 소득
6세이하 자녀유무	0=없음, 1=있음
출퇴근여부	0=출퇴근 없음 1=출퇴근함
거주지역	0=중소도시, 1=대도시
주택의 유형	0=단독주택, 1=공동주택
종속변수	
사업장 위치	0=재택 1=출퇴근
근무환경 만족도	1=매우 불만족, 3=보통, 5=매우 만족
직업만족도	만족
생활만족도	

둘째, 가계의 어떠한 특성들이 사업장소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셋째, 가족기업 소유자의 근무환경 만족도, 직업만족도, 생활만족도의 수준은 어떠하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위하여 근무환경 만족도, 직업만족도, 생활만족도의 수준을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설명변수는 가족기업 소유자의 개인적 특성으로 자영업자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 6세이하의 자녀유무, 직업의 종류, 출퇴근 여부 등을 선정하였으며, 주거환경 특성으로는 주택의 종류와 거주지역 등을 선정하였다. 연구문제에 사용된 변수들의 정의와 측정방법은 〈표 1〉과 같다.

2. 연구방법

1) 자료 및 표본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대우경제연구소의 1998년 한국가구패널조사(1998 Korean Household Panel Study) 자료로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6,320명을 다단계 표본추출확률방법으로 표집한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은 가족소유 소기업 가계를 분석하는데 있으므로, 자료 중 자영업이나 자유업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남녀를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절차에 의해 본 연구에서 사용된 최종표본은

남자 자영업자 590명, 여자 123명으로 총 71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분석방법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근무환경 만족도, 직업만족도, 생활만족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사업장의 위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Logistic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근무환경 만족도, 직업만족도,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다중회귀분석 및 Logistic 분석에 앞서 연구모형에 사용된 변수들의 단변량관계 및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VIF 값이 10 미만으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과해석 및 논의

1. 가족소유 소기업가계의 일반적 특성

가족소유 소기업가계의 사업장에 따라 정규적으로 사업장으로 출퇴근하는 경우가 전체 조사대상자의 58.63%였으며, 출퇴근하지 않고 자기집에서 자영업을 하는 경우가 41.37%였다.

조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44.3세였으며, 평균 교육받은 년수는 11.55년으로 고등학교 졸업이 가장 많았다. 한달 평균 수입은 211.16만원으로 도시근로자 평균 수입과 유사한 수준이다.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주당 62.14시간으로 봉급생활자의 평균노동시간보다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형태는 공동주택 거주가구가 56.9%(406명)으로 더 많았으며, 단독주택 거주가구는 43.1%(307명)이었다. 거주지역은 대도시지역이 58.91%(420명), 중소도시 지역이 41.09(293명)이었다.

조사대상자들을 정규적으로 출퇴근하는 자영업자와 자기집에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나누어 특성을 비교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재택 자영업자인 경우가 평균연령이 47.33세로 독립된 사업장을

〈표 2〉 재택자영업자와 출퇴근 자영업자의 특성비교

		재택 자영업자	출퇴근자영업자	t값
연령(세)		47.33	42.31	711***
교육수준(년)		10.82	12.05	605.1***
소득		190.07	224.99	624***
근무시간(시간/주)		65.59	61.04	697**
근무환경만족도(1-5)		2.82	2.93	N.S.
직업만족도(1-5)		2.99	3.15	640.9**
생활만족도(5-25)		15.45	15.61	N.S.
		재택 자영업자 빈도(%)	출퇴근자영업자 빈도(%)	χ^2
성 별	남 자	234(39.66)	356(60.34)	4.140*
	여 자	61(49.60)	62(50.40)	
6세이하 자녀유무	있 음	95(41.48)	134(58.52)	N.S.
	없 음	192(39.67)	292(60.33)	
거주지역	대도시	147(35.00)	273(65.00)	11.72***
	중소도시	140(47.78)	153(52.22)	
주택형태	공동주택	138(33.99)	268(66.01)	15.37***
	단독주택	149(48.53)	158(51.47)	

가진 경우의 평균연령 42.31세 보다 더 많았다. 평균 교육수준은 출퇴근 자영업자인 경우가 12.05년으로 재택 자영업인 경우 10.82년보다 약간 높았다. 월평균소득도 출퇴근 자영업인 경우가 224.99만원으로 재택 자영업인 경우의 190.07만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근무시간은 재택 자영업인 경우가 주당 근무시간이 63.61시간으로 출퇴근 자영업인 경우의 61.18시간보다 더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별의 경우는 남자는 출퇴근 자영업인 경우가 60.34%로 많았으나, 여자의 경우는 재택자영업과 출퇴근 자영업이 반반정도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6세이하의 자녀가 없는 경우도 출퇴근 자영업으로 출퇴근하는 집단에서 약간 많은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출퇴근 자영업으로 출퇴근하는 비율이 65%로 더 높았다($p < .001$). 주택의 형태는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나 연립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출퇴근하는 비율이 66.01%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독주택이 자영업에 위한 장소로서 공동주택 보다는 공간을 활용하는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사업장 위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영업자가 독립적인 사업장을 마련하는가 아니면 자신의 집을 사업장소로 활용하는 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Logistic 분석을 한 결과, 사업장 위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영업자의 연령과 거주지역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영업자의 연령이 젊을수록 출퇴근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거주지역이 대도시지역일수록 독립적인 사업장으로 출퇴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이는 자영업자의 연령이 적을수록 기업형 자영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많고, 연령이 많을수록 생계형 자영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일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기업형 자영업의 경우는 출퇴근하는 독립적인 사업장을 가질 가능성이 많고 생계형 자영업은 자기 거주지에 사업장을 가질 가능성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김지희(1998)의 연구와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표 3〉 사업장 위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P. E. #	S. E. #
성별	.139	.019
연령	.037	.188***
교육수준	-.050	-.082
월평균소득	-.001	-.079
6세이하 자녀유무	-.012	-.003
거주지역(중소도시)	-.397	-.107*
주택형태(단독주택)	-.212	-.057
상수	-.861	
-2 Log Likelihood	796.71***	

* p< .05 ** p< .01 *** p< .001

P.E.(Parameter Estimate) S.E.(Standard Error)

대도시지역일수록 독립적인 사업장으로 출퇴근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대도시일수록 주택이 가족의 거주공간으로서의 역할만으로 한정될 가능성이 높고 기업형 자영업의 비율이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되며, 중소도시에서는 생계형 자영업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주지에 사업장을 가지는 경우가 더 많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재택자영업자의 근무환경 만족도, 직업만족도,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재택자영업자의 근무환경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보면 자영업자의 교육수준만이 유의한 변수였다(표 4). 자영업자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영업자의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사업장 위치가 어느 곳인가 보다는 자신의 직업의 선택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는 높은 교육수준에 따라 전문적인 수준의 자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직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면 자영업자의 근무환경 만족도만이 유의한 변수였다. 이는 자영업자의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일수록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근무환경에 대해 만족할수록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자영업자의 교육수준이 간접적으로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면 자영업자의 직업만족도가 유의한 변수였다. 즉 자영업자가 직업에 대한 만족도의 수준이 높을수록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도 자영업자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이 원하는 자영업의 선택가능성이 높고, 사업장의 위치 역시 선택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교육수준이 근무환경 만족도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나, 직업만족도나 생활만족도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 재택자영업자의 근무환경만족도, 직업만족도,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근무환경 만족도		직업 만족도		생활 만족도	
	b#	β #	b#	β #	b#	β #
성별(남자)	-.150	-.066	-.056	-.032	.590	.089
연령	.001	.006	.004	.059	-.004	-.013
교육수준	.050**	.164	.003	.013	.066	.074
월평균소득	.00002	.033	.0001	.112	.0001	.029
6세이하 자녀유무	.029	.015	.008	.005	.259	.045
거주지역(중소도시)	-.090	-.049	-.040	-.029	-.047	-.009
주택형태(단독주택)	-.004	-.002	-.040	-.029	-.358	-.066
근무환경만족도			.219***	.287	.404	.134
직업만족도					1.920***	.559
상 수	2.261***		2.026***		9.740***	
F-Value	2.526**		4.632***		14.718***	
R-square	.031		.103		.298	

* p< .05 ** p< .01 *** p< .001

b (parameter estimate) β (standardized estimate)

4. 출퇴근자영업자의 근무환경 만족도, 직업만족도,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출퇴근자영업자의 근무환경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영업자의 성별만이 유의한 변수였다 <표 5>. 즉 여성 자영업자가 남성에 비해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경우 출퇴근으로 인해 가정생활을 돌보거나 자녀를 양육하는데 따른 어려움이 있어 남성보다 근무환경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면 자영업자의 근무환경 만족도가 가장 유의한 변수였으며, 다음으로는 월평균소득이었다. 자영업자가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의 연구(Herzberg 등, 1957)에서도 직업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중에서 경제적인 여건이 중요한 변수로 나타난 것과 동일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면 직업만족도가 가장 유의한 변수였으며, 다음으로는 근무환경 만족도, 성별, 월평균소득, 거주지역이 유의한 변수였다. 출퇴근자영업자의 경우 직업과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의 수준이 높을수록, 여자일 경우, 중소도시에 거주할 경우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경우 출퇴근으로 인한 자녀양육이나 가정관리에 대한 부담은 있으나 어린 자녀나 다른 가족구성원들로 인해 업무방해를 받기 쉽고, 그 결과 여성들은 자신의 수면시간을 줄여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부족 현상을 경험하게 되고, '가정·일'의 이중역할수행에 따르는 어려움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독립된 사업장으로 출퇴근하는 여성의 경우 근무환경에 대해 더 만족하고, 직업만족도나 생활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출퇴근자영업자의 만족 수준이 높은 것은 대도시보다 출퇴근시 경험하게 되는 불편함이 적고 교통비, 사무실 유지비 등이 저렴하여 대도시에 거주하는 자영업자보다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가족소유 소기업 가계의 사업장 위치는 어떠한 특성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출퇴근 자영업 가계와 재택 자영업 가계의 특성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사업장 위치에 따른 근무환경 만족도, 직업만족도,

<표 5> 출퇴근자영업자의 근무환경만족도, 직업만족도,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근무환경 만족도		직업 만족도		생활 만족도	
	b [#]	β [#]	b [#]	β [#]	b [#]	β [#]
성별(남자)	-.282**	-.124	.120	.059	.825**	.118
연령	-.003	-.028	-.002	-.023	-.003	-.009
교육수준	.024	.091	.012	.050	.033	.041
월평균소득	.00004	.074	.0001***	.164	.0003*	.110
6세이하 자녀유무	.105	.060	-.015	-.009	.040	.007
거주지역(중소도시)	.037	.022	-.037	-.025	-.054*	-.110
주택형태(단독주택)	.055	.032	-.010	-.006	-.120	-.023
근무환경만족도			.163***	.183	.533***	.189
직업만족도					1.715***	.490
상수	2.564***		2.420***		8.057***	
F-Value	2.742**		4.983***		31.802***	
R-square	.045		.083		.399	

* p< .05 ** p< .01 *** p< .001

[#] b (parameter estimate) β (standardized estimate)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의 수준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국내의 남성 자영업자 590명과 여자자영업자 123명을 대상으로 사업장의 위치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를 살펴 보았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가족소유 소기업 가계를 사업장소에 따라 구분해 본 결과 출퇴근 자영업자가 조사대상자의 58.63%였으며, 재택 자영업자가 41.37%로 전체 자영업자 중 출퇴근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았다.
2. 자영업자가 독립적인 사업장을 마련하는 경우는 재택자영업자보다 젊을수록, 거주지역이 대도시 지역일수록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영업자의 연령이 많을수록, 중소도시에 거주할 경우 생계형 자영업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주지에 사업장을 가지는 재택자영업일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재택자영업자의 근무환경 만족도는 자영업자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 만족도는 자영업자가 근무환경에 대해 만족할수록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는 자영업자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의 수준이 높을수록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출퇴근자영업자의 근무환경 만족도는 자영업자의 성별만이 차이를 보여주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여성 자영업자가 남성에 비해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 직업 만족도는 자영업자가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는 직업과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의 수준이 높을수록, 여자일 경우, 중소도시에 거주할 경우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자영업자의 근무환경 만족이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사업장소는 자영업자의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거의 연구대상이 되지 않았던

가족기업의 사업장소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로서 가치를 가지며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차후의 연구로서는 소규모 가족기업과 관련된 심층적이며 광범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소규모 가족기업이 기업형 자영업인가, 생계형 자영업인가를 구분해 내고 이들의 기업경영 측면과 가족생활 측면의 비교연구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가족기업의 소유자의 성별에 따라 종사하는 직종이 어떻게 다를 것인가, 가족기업의 사업장 위치선정이 영향을 받는가, 소규모 가족기업의 사업장 위치에 따라서 부부간의 만족도나 가족관계 만족도는 어떻게 영향을 받으며 이는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가? 등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연구가 요망된다.

■ 참고문헌

1. 김외숙(1998) "재택근로와 가족자원경영학의 과제" 1998년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 24-39.
2. 김지희(1998) "가족기업 가정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3. 류재우, 최호영(1999) "우리나라의 자영업 부문에 관한 연구", 『노동경제논집』 제22권 제1호: 109-140.
4. 문숙재, 김지희(1997a) "가족자원 활용을 위한 재택사업(Home-based business)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창간호, 43-55.
5. 문숙재, 김지희(1997b) "가족기업(Family Business) 경영에 관한 이론적 논의" 대한가정학회지, 제35권 6호, 317-334.
6. 박명희, 박미혜(1997) "재택근무의 고찰과 가정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권 3호, 1-13.
7. 신경아(1994) "여성 가내노동자의 현실과 보호", 여성연구 제 45호, 한국여성개발원
8. 용현주(1998) "1998년도 한국의 소규모 기업 경영실태분석, 「한국의 소규모기업」, 국은경제연구소.
9. 조옥라(1995) "재택근무자에 대한 심층연구", 한

- 국여성학회, 제 11차 춘계학술대회
- 10) 조은(1997) "미래사회와 여성노동", 「미래의 일과 노동」,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미래인력 연구센터.
 - 11) 중소기업청(1998) "중소기업의 최근 동향 및 대책", 중소기업청
 - 12) 최강식, 정진화(1997) 「여성 잠재인력의 활용방안」, 한국노동연구원
 - 13) 최태룡(1991) "구중간층의 형성과 사회의식: 전주시 자영업자층에 대한 경험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 14) 통계청(1988) 1998년 4월 고용동향
 - 15) Barbara Brabec(1994) [Homemade Money] Betterway Books
 - 16) Bates, T.(1991) "Financial Capital Structure and Small Business Viability, In R. Yazdipour(Ed.), Advances In Small Business Finance, 63-78. Nowell, MA:Kluwer Academic Publishers.
 - 17) Beach, B. (1989) [Integrating Work and Family Lif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Albany.
 - 18) Hayghe, H.(1990) "Family Members in the Work Force", Monthly Labor Review, 113(3), 14-19.
 - 19) Heck, R.K.Z., & Walker, R.(1993) "Family-Owned Home Business: Their Employees and Unpaid Helpers" FBR, Vol.VI, No.4, 397-415.
 - 20) Herzberg, F., Mausner, B., Peterson, R.O., & Capwell, D.F. Job Attitudes: Review of research and opinion. Pittsburgh: Psychological Service of Pittsburgh, 1957
 - 21) Herzberg, F., Mausner, B., & Snyderman, B. The motivation to work, New York: Wiley, 1959
 - 22) Hollander, B.S., & Elman, N.S.(1988) "Family-Owned Businesses: An Emerging Field of Inquiry. FBR, 1, 145-64.
 - 23) Stokols, D., & Novaco, R. Transportation and well-being: An ecological perspective. In Altman, J.F. Wohlwill, & P.B. Everett (Eds.), Transportation and behavior, New York: Plenum, 1981